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릇 12월은 지나온 한해를 둘러보는 달이라고 한다.

그러나 12월의 이 아침 우리 천만 군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걸출하신 분, 세 기에 걸쳐 낮과 밤 별의 업적과 고결한 덕망으로 한평생을 수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불러는 충정으로 심장을 끌고 있다.

년대와 세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승리의 한길만을 줄길을 풀어 승리의 한길만을 풀어놓는 달이 아니었다.

아버지장군님을 둘러보며 몸부림치던 이 나라 천민군민을 산악 같이 불러일으켜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 이끌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현신과 불멸의 업적을 무너 말로 다 전할 수 있으랴.

절세위인의 고결한 충정과 현신으로 엮여지고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숭고한 자육자육을 더듬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지께서 온 나라에 지펴주신 유훈관철전의 불길, 그 거세한 열풍속에 밝아오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광휘로운 미래를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둘러쥐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끌까지 관철하여야 하며 그려면 만사가 잘되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신임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걸어온 지난 4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온 세월이었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온 충정의 나날이였다.

얼마나 많은 사변들이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빛내이며 역사에 물문자로 새겨졌던가. 인민 위한 얼마나 회한한 창조물들이 조국땅 푸릇마다에 우뚝 우뚝 솟아났던가.

위대한 혁사를 체험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고 시대를 빛내여온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 말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제일에 앞장서 헌신해오신 위대한 기수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여 위대한 혁명자로 성장하신 정치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앞에 보여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끌까지 관철하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 바로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앞에 보여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

자신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것을 맹세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도 그 어디에나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끊김없이 흐르고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땅전체가 그대로 장군님의 혁명사적지와도 같다며 걱정에 담화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 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길을 밟혀주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교파서 인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산악 같이 끌어일으켜 장군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 이끌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현신과 불멸의 업적을 무너 말로 다 전할 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걸어온 지난 4년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온 세월이었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가 닥쳐와도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넋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런 때 순간이라도 막을 놓고 주저앉아있으면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즐기게 될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그해도 저물어 가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짐작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선언하였다.

위대한 혁사를 체험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고 시대를 빛내여온 우리 모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 말로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제일에 앞장서 헌신해오신 위대한 기수이심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그해도 저물어 가는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짐작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선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끌까지 관철하려는 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 바로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온 세계앞에 보여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

자신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전에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겠다는 것을 맹세하였다. 어느 단위를 찾으으시되도 어렵게 하면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친란히 꽂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군에서 계시면서도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온기가 그대로 따뜻이 스며들도록 하시기 위해 미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워 단위들을 먼저 찾으으시며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물길을 찾으으시는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벌려들이 이 땅우에는 민사람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화혹을 펼쳐지게 되었다.

새해의 첫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율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으시어 어버이장군님을 잊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 싶어졌다.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위해 올으로 암으로 날뛰는 온갖 적 대세력파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꺼칠 줄 모르는 불길마냥 자리잡고 있은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이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구현하여 혁명위업을 이끌어오신 것처럼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주봉을 품어없이 들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고있으며 통당만세로, 사회주의 민족소리만 들려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우리 당의 최고령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것을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여서 주체혁명워업 완성의 불변의 진로를 명시하였다. 발표하시는 한편 한건의 로작들에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꽉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류경수, 인민야외빌상장, 롱리언민족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김정숙령방법 광장 등으로 풍물박수...

전정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국장을 안겨 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류경수, 인민야외빌상장, 롱리언민족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김정숙령방법 광장 등으로 풍물박수...

전정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국장을 안겨 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때 제일 기뻐하시며 어느때 제일 문제해하시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예로 풍물박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서 어버이장군님의 넘원과

사랑의 온기가 그대로 따뜻이 스며들도록 하시기 위해 미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워 단위들을 먼저 찾으으시며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물길을 찾으으시는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벌려들이 이 땅우에는 민사람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화혹을 펼쳐지게 되었다.

새해의 첫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율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으시어 어버이장군님을 잊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 싶어졌다.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일으켜세워주신분도, 맹전 추위도 마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건설사업을 협진지도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넘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장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인민극장은 어버이장군님께서 10여년전부터

도특별히 관심하시면서 새마지막시기에 국장을 훌륭히 일떠설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국장을 안겨 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수 있고 난판이 앞을 가로막을수도 있다. 하지만 토霉와 자제, 자금, 설비를 따지기 전에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끌까지 관찰하고자 노력으로 풍물박수...

전정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국장을 안겨 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류경수, 인민야외빌상장, 롱리언민족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김정숙령방법 광장 등으로 풍물박수...

전정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홀륭한 국장을 안겨 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때 제일 기뻐하시며 어느때 제일 문제해하시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명예로 풍물박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에서 어버이장군님의 넘원과

사랑의 온기가 그대로 따뜻이 스며들도록 하시기 위해 미음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워 단위들을 먼저 찾으으시며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물길을 찾으으시는가.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벌려들이 이 땅우에는 민사람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화혹을 펼쳐지게 되었다.

새해의 첫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율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을 찾으으시어 어버이장군님을 잊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 싶어졌다. 힘을 내라고 하시며 우리 군인들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가 자신께서 돌아보신 다른 공장들

과 함께 협진지도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넘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끌어내는 문제를 주선으로 풀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고있으며 통

당만세로, 사회주의 민족소리만

들려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끌어내는 문제를 주선으로 풀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고있으며 통

당만세로, 사회주의 민족소리만

들려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끌어내는 문제를 주선으로 풀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고있으며 통

당만세로, 사회주의 민족소리만

들려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끌어내는 문제를 주선으로 풀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고있으며 통

당만세로, 사회주의 민족소리만

들려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가 자신께서 돌아보신 다른 공장들

과 함께 협진지도하시면서 어버이장군님의

한생의 넘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군인건설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수령님들과 당의 평도업적을 고수하고 끌어내는 문제를 주선으로 풀어워고나가는 단위들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 인민들이 당정책의



# 온 나라에 메아리치는 팔영령의 종소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  
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  
늘에 살라고 하는 것도 미래  
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  
여 투생하라는 것입니다.»

맹—맹—

구성성 치유소학교 팔영령분  
교의 유정한 종소리가 뛰어난  
산발을 흔들며 메아리쳐 갔다.

벌써 몇 년이 흘렀구나 하고 속  
생각을 하며 종을 치던 원금운  
교원은 이부리 아득히 뛰어나  
간 철길과 큰길 쪽에서 품처럼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때  
없이 찾아오는 정주철도본국 일

분교 학생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 가고 있는 정주철도본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군들의 정다운 모습이 문득 나  
타날지 어이 알라. 어느새 선생  
님의 주위에 모여든 학생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먼곳에서 활  
성을 지르며 뛰어가운 하던만  
이들이었다.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준비한  
아이들의 공연을 본 조명복동무  
는 분교에 악기가 많았을 것을 보  
고 며칠후 정주철길대의 당시 일군  
과 함께 전자풍금이며 이불, 송  
단, 당파류 등을 가득 마련해 가  
지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뜻밖  
의 사정으로 하여 달리면 차가  
멈추어서서 되었다. 일꾼들은  
지체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뛰어나왔다. 낮은 어둠과 날씨  
는 맹했다.

이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새  
분교에는 교원이 한명 더 배치  
되어 왔고 2명의 출입생이 나왔  
으며 학생수는 12명으로 늘어  
났다. 하지만 부모들은 언제 한  
번 학용품과 축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분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나라의 흥륭한  
역군이 되기를 바리는 분국일군  
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학용품과 각종 체육기재  
들이 그득히 쌓여있던 것이다.  
이제는 분교 학생들의 실력  
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  
년마다 철길소원들의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  
다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은 아이  
들의 정신적 성장이다. 그 모습  
이 일기장에 또박또박 새겨넣은  
글을마다에서 어려운다.

조명복동무는 분교에서 가까  
운 유통여기로 후원단체가 되어  
철길소원들의 세 힘에 넘쳐  
일을 더 잘하였고 학생들은 스  
스로 세례에 일찍 일어나 분교  
마당을 쓸고 수업에도 열성적으  
로 참가하였다.

정주철도본국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학생과 사랑은 여기에서  
풀한 청년들로 풀격대를 조직하  
여 몇 달동안 건설을 마무리하  
도록 이끌어주었다. 분국의 일군

용품을 마련해 가지고 분교를 찾  
았고 역장들인 김락수, 신인순  
등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탁구판이 새  
로 생겨났고 철봉, 평행봉을 비  
롯한 체육기체들도 그만하게 갖  
추어졌다.

언제인가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에게는 팔영령의 종소리  
가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이  
들처럼 진실을 바쳐 후대들을

끌치면서 축하해주던 일을 팔영  
령의 미술사람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새  
분교에는 교원이 한명 더 배치  
되어 왔고 2명의 출입생이 나왔  
으며 학생수는 12명으로 늘어  
났다. 하지만 부모들은 언제 한  
번 학용품과 축구공, 배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년마다 철길  
소원들의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분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  
를 받드는 나라의 흥륭한 역군  
에게는 더 많은 품을 들여  
여야 할까문이다.

그들은 원수님을 찾았을 때  
마다 철길소원들의 뜨거운 마음  
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  
년마다 철길소원들의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  
다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은 아이  
들의 정신적 성장이다. 그 모습  
이 일기장에 또박또박 새겨넣은  
글을마다에서 어려운다.

이런 일은 조직이 되었지만  
그들은 원수님을 찾았을 때마다  
철길소원들의 아이들을 위해  
산간벽촌에 찾아온 철길교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알았다. 한  
편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에 다니고 싶어졌다. 그의 생  
활에 더 깊은 관심을 돌렸다.  
어느날 분교의 학생들이 이런

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레페비죤이나 신문에서 보고  
들든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정말 감동이 크고 생각이 많았  
습니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이  
렇듯 아름다운 후대사랑의 회원  
들이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찾  
을 헤아려 6. 6절날 일군

을 헤아려 우리 원수님께 어  
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팔영령분교는 우리 일군

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

시사상을 어떻게 충직하게 만들  
어나가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  
쳐주는 축도였으며 배일의 승리  
를 굳게 믿는 신념의 강자들이 후  
대들을 위해 이 광에 쌓아는 또  
한편의 감동들은 서정였다.

우리에게는 팔영령의 종소리  
가 끊임없이 갖추어졌다. 렐강이 떨  
어져서 철길교원은 철길교원은  
열어보고 식량과 부식물들도 있  
지 않고 제때에 실어다주는 당  
책임일군은 원금순교원에게 있  
어서 친아버지나 딸들없이

지난해 10월 분국에서는 유

다른 금료도 풍을 조직하였다.

분국의 일군들을 동원하여 하  
루동안에 팔영령분교에 수도판  
을 놓아주자는 것이었다. 분교에

움직이마다 시내 물을 펴는

교원의 모습이 늘 가슴에 걸려있

던 분국의 책임일군들이 150

여미의 수도판을 저택에 마련해

놓고 작업조직을 하였던 것

이다. 작업방은 방대하였지만 일

군들은 사는 사람에게 편리되어 땀

을 흘리며 땀을 펴는 수도판을

물었다. 작업이 끝난 후 수도판

에서 물이 펼쳐져 나오는 것을

보며 일군들은 일한 보람

이 있다고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러고도 아직 시간이 많다

며 물 담그는 힘들었겠는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텐데...»

며칠후 새 자전거를 마련해가

지고 분교를 찾았을 때 조명복동무

는 선생님에게 정말 미안하다

했다고. 이 자전거를 타고다니

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

고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뜻밖

의 일에서 원금순교원이 있다.

분국의 일군들이었다. 그들은

철길소원들의 아이들을 위해

산간벽촌에 찾아온 철길교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알았다. 한

편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았다. 조명복동무는 교원에게

천부모의 정을 주어 그가 안락

되어 교육사업을 잘할수 있게

되도록하는 것을 자기의 마땅한 책

임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분

교원이 일시적인 홍봉으로

분교에 왔다가 혹시 가버리면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

# 《조선의 전통의학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 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토론회 참가자들의 반향을 놓고

세상을 둘러보면 자기의 전통의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발전 수준을 높이고 경험을 풀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유구한 혁사를 자랑하는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토론회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의 보건기구들은 반향은 대단하였다.

## 세계의 학제의학

인디아, 방글라데슈, 인도네시아 등 10여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을 주제로 한 보건체계에 통합시키고, 그의 효과성과 안전성,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의학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은 500여년의 역사와 더불어 창조되고 발전되어온 우수한 민족유산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B.C. 3000년전에 벌써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토침에 의한 침구술을 치료에 적용하였으며, 찔질과 같은 간단한 치료법들과 인삼, 쑥과 같은 여러 가지 약초들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벌써부터 적용하여왔다.

우리 민족의 사랑인 고려의학은 해방후 당의 현명한 평도 아래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였고 오늘날에는 그 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지만 유구한 혁사와 전통은 토론회에 참가한

정하고 깊은 관심을 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하기에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토론회에 참가한 세계보건기구 참으로 훌륭하다.

— 전통의료봉사가 책임 보건체계에 대한 학제적 접근법으로 주민들에게 보장되고 있으나

도 조선의 고려의학이 우수한 전통의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의료봉사가 모든 주민들에게 보장되고 있으나

그것은 정밀 농리를 사실이다. 조선의 전통의학의 앞길은 천만하다.

— 각국의 보건기구들이 터친 이와 같은 친란을 놓고서도 우리는 고려의학이 당국 국가의 크게나운 관심으로 들판 한 학기술적, 물질적 대응을 갖추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우월한 전통의학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뜻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태양의 빛발 아래 민족유산도 빛난다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은 새겨온 자랑스러운 혁사의 갈피에는 난치나이지료법(고기자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고려치료방법)으로 세계의 학제를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

세계의 학제의학의 초점을 모았던 그 날 치료활동에 참가하였던 한 의료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의 전통의학은 너무나 뛰어난 상태에 있는 것이 일부 발견된다.』

— 날로 발전하는 현대의 학제에 의해 전통의학은 너무나 뛰어난 상황에 있는 것이 일부 발견된다.』

보건성 일군인 최숙현동무는 고려의학학원과 어느 한 레인민병원에서는 인민들의 현실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 와서 우수한 전통의학치료방법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성 일군인 최숙현동무는 벌써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토침에 의한 침구술을 치료에 적용하였으며, 찔질과 같은 간단한 치료법들과 인삼, 쑥과 같은 여러 가지 약초들을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게 벌써부터 적용하여왔다.

우리 민족의 사랑인 고려의학은 해방후 당의 현명한 평도 아래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였고 오늘날에는 그 발전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지만 유구한 혁사와 전통은 토론회에 참가한

는 일군은 럽장을 단호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니 언젠가 만났던 경공업성의 한 일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 전 평양아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시의 현대화공장에서 충격을 이룬 일군에게 찔질과 같은 간단한 치료법과 함께 벌써부터 적용하여왔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길을 해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너무도 뜻밖의 일로 민족의 존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뜻이었다.

그 날은 새해를 맞을 앞둔 날이었다. 벌써 기쁨을 드립만 한 좋은 성과들을 마련해놓지 못한 것으로 하여, 그렇게 주운 날 얼음처럼 민

# 대결의 자세와 입장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엄마전 판문점에서 북남사이의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그 결과 제1차 북남당국 회담을 11일 개최한 내용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옥계례에게 디시급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런던을 불러올 키고 있다. 지금 우리 거래구구나 6. 15 통일시대를 감히 깊이 돌이켜보면서 그 경쟁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파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북파 남은은 겨레의 기대와 넘원에 맞게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과거와 대단하게 결별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낡은 대결판면을 털어버리는 것은 북남관계의 역사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북파 남이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지 70년이 되었다.

민족의 문율은 이 땅우에 참혹한 학살의 재난이 떠밀위를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북파 남시기에 민족질서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판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대결일반도적인 판점과 입장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의 산물로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파 남은은 한미 줄을 나눈 동족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북파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덜어놓고 적대시 하면서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을 피할수 없다.

현 북남관계의 비극적 현실은 결코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의 풀수에까지 짚어들어온 통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복족적인 거부감, 제집처인 적대판념이 초래된 필연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이 『내부정책』으로 내는 『신선포로세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느니, 『국제적인 준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느니 하며 이전 시기의 『북에 끌려다닌 북남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미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고 『신선포의 기초』라고 못 박았다.

누가 누구를 꽂고가겠다는 이것부터가 시대착오적인 대결판념의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최망과 자주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6. 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를 그 누구에게 끌려다닌 『비정성』인 것으로 외로한 것이야말로 비정상적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다.

민족의 문율은 이 땅우에 참혹한 학살의 재난이 떠밀위를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북파 남시기에 민족질서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판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대결일반도적인 판점과 입장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의 산물로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파 남은은 한미 줄을 나눈 동족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북파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덜어놓고 적대시 하면서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을 피할수 없다.

현 북남관계의 비극적 현실은 결코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자들의 풀수에까지 짚어들어온 통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복족적인 거부감, 제집처인 적대판념이 초래된 필연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이 『내부정책』으로

내는 『신선포로세스』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느니, 『국제적인

준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느니 하며 이전 시기의 『북에 끌려다닌 북남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미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고 『신선포의 기초』라고 못 박았다.

누가 누구를 꽂고가겠다는 이것부터가 시대착오적인 대결판념의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앞날에 대한 최망과 자주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6. 15 통일시대의 북남관계를 그 누구에게 끌려다닌 『비정성』인 것으로 외로한 것이야말로 비정상적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다.

민족의 문율은 이 땅우에 참혹한 학살의 재난이 떠밀위를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북파 남시기에 민족질서하고 대결할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여 판계개선을 이룩하고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다.

대결일반도적인 판점과 입장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족적인 사고 방식의 산물로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북파 남은은 한미 줄을 나눈 동족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로 북파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덜어놓고 적대시 하면서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의 파국을 피할수 없다.

현 북남관계는 소모적인 평생의 파장이 아니라 명실공히 판계개선에서 세기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의의 있는 대화, 진실적인 대화로 되어야 한다.

6. 15 통일시대에 북파 남은은 대화와 판련하여 체면이나 형식보다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를 앞세웠으며 민족적전진에서의 의진상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하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된 북남관계의 사변적성과들은 대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입장으로 대족을 대이며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 규설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전진을 규복하면서 카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당시에 이룩